

“잼버리, 꼭 성공시킬 것”

6·13 지방선거... 송하진 도지사 후보, 새만금 정책 공약 발표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1일 ‘꿈과 희망의 전 북미래 새만금 세계잼버리! 잼버리와 함께 전 북이 세계로 나아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의 새만금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참가국이 169개국으로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국 77개국 보다 92개국이 많고 참여하는 인원수만 무려 5만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국제 행사”라며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는 국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과 전라북도 발전의 초석이 되는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이를 위한 첫 번째 공약

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추진단 운영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추진 기구를 조기에 구축해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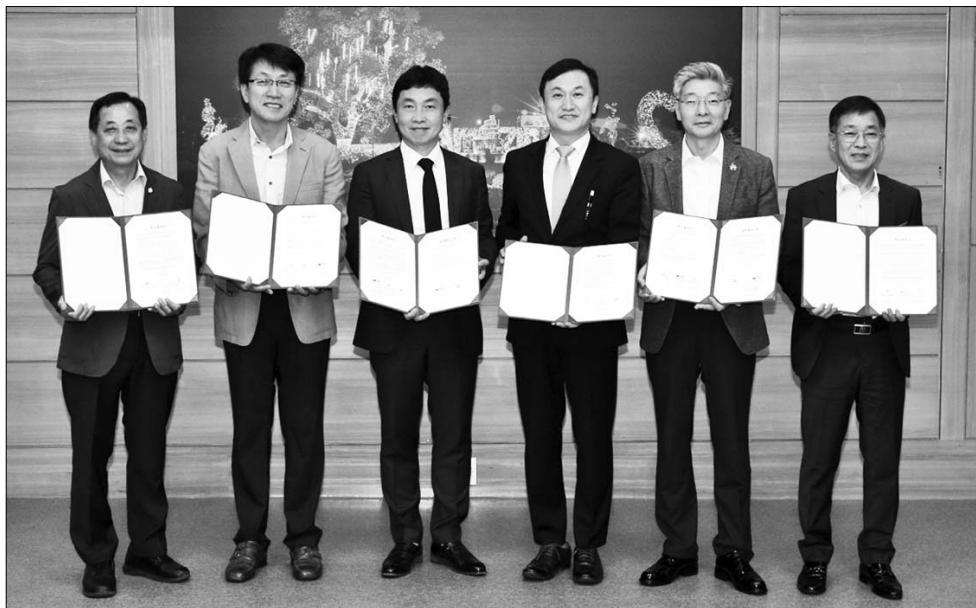
또한 상하수도 및 가스 공급시설 구축사업과 보조간선도로 개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새만금 카본타워 건립사업이다. 송 후보는 1조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카본타워 건립을 위해 복합명품도시 부지 장기임대방안 등을 새만금 개발청과 협의해 나가고 새만금 카본타워 건립과 운영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 카본타워는 아시아의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500M 이상 건립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새만금의 랜드마크로 새만금 투자유치에도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스마트 해양무인 통합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이다. 송 후보는 자동차·조선산업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신성장 동력산업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성장이 예측되는 스마트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 내 전략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스마트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센터 조성사업과 스마트 해양무인시스템 평가·기술기반구축사업, 테크비즈 육성 기반 조성사업 등 스마트 해양무인 통합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새만금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전환, 새만금 박물관 건립,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새만금 신항만 조기완공 및 확장, 새만금~대야 간 철도건설, 서부내륙 고속도로 부여~익산구간 동시착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지난 1일 전북도와 익산시, (주)경인양행, 다이토키스코(주)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 니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 조성용 경인양행 대표이사, 이상호 다이토키스코 대표이사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기업 경인양행, 익산에 등지

전북도·익산시와 투자협약
2022년까지 1800억원 투자
완료되면 350여개 일자리 창출

중견기업 (주)경인양행이 전북 익산지역에 18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도와 익산시, 경인양행, 다이토키스코(주)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인양행과 다이토키스코(경인양행과 일본 Daino

Chemix Corporation 합작회사)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12만5344㎡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800여억원을 투자한다. 투자가 완료될 경우 35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들 업체는 오는 2019년 하반기 1차 공장 건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인양행은 지난 1971년 설립돼 2017년 기준 연매출 3000억원, 직원 900여명이 근무하는 중견기업이다. 이 업체는 다이토키스코를 비롯한 5개 회사에서 염료, 잉크, 전자재료

용 유기재료, 사카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업체는 제3일반산업단지 공장시설을 통해 향후 색재료, 전자재료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첨단 화학소재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우량 중견기업이 1000억원 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익산에 투자를 결정한 만큼 반드시 성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농업의 미래 전문인력 키운다

전북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61명 추가 선발

전북도는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61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부터 1차로 176명을 선정하여 영농정착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청년들 사이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되어 농식품부 정부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사업은 후계

농 선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만 40세 미만 (1978.1.1.~2000.12.31.) 영농경력(2015년 이후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 본인 이름으로 농지 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개인별

80~10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다. 단, 사업체를 직접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등학교 대학 교 재학생 휴학생과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은 7월 2일까지 농업사업정보시스템 (http://www.agrix.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청년창업농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만 집중하도록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창업 용자금과 영농 컨설팅·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성공적 농촌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부안군 미취업자 취업, 창업 교육생 모집

<p>주요 교육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봉 활용 신 요리 실습, 제과·제빵 실습 ▶ 오디오와인, 오디오로 실습 ▶ 사회적 경제 및 식품위생 교육 ▶ 산업체 탐방 및 취업연계 	<p>모집대상 취, 창업을 희망하는 부안군민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자 우대)</p> <p>모집기간 2018. 5. 14(월) ~ 6. 29(금)</p> <p>신청방법 전화 및 이메일 접수 T 063-280-5238 E suyong2@kijeon.ac.kr (신청서 제출 : www.kijeon.ac.kr 접수 후 공주시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p> <p>모집인원 15명</p> <p>교육기간 2018. 7. 2(월) ~ 8. 6(월) (120시간)</p> <p>교육비용 전액지원(식비포함)</p> <p>교육장소 부안군 노인여성회관</p>
<p>교육지원</p> <p>참여자 교육비 전액무료 (훈련수당 월 최대 식비포함 30만원 지급)</p> <p>부안 참봉 산업 활성화와 부안군민의 취업을 위해 전주기전대학과 부안군이 함께합니다.</p>	
<p>사업설명회 장소 : 부안군청 5층 중회의실 1차 2018. 6. 7(목) [오후 2시] 2차 2018. 6. 21(목) [오후 2시]</p> <p>“사업설명회 참석인원 선착순 20명 기념품 증정”</p> <p>부안군 고용노동부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문의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T 063-280-5238 이메일 suyong2@kijeon.ac.kr</p>	

‘후보자 TV토론 주간’ 토론회 보시고 투표를

전북선거방송토론위, 7일까지 진행

전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TV토론회를 7일까지 진행한다. 1일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TV토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시청률 제고를 위해 선거기간 개시일인 지난날 31일부터 사전 투표기간 전인 이달 7일까지를 ‘후보자 TV토론 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 도 및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TV토론회를 KBS전주방송과 전주MBC에서 생방송으로 한다.

특히,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모바일과 인터넷(tv.debates.go.kr,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을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권자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지역에서 실시된 후보자 토론회를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고용위기지역 지정 군산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된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전북 군산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1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자 또는 여성 가장, 중증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만 지원되지만, 이번 위기 지역 지정으로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군산지역 소재 사업장 실직자 가운데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자(2018년 4월 5일 이후)를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년간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1년간 360만원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후보자 등향

“새만금 무역항 농업용지 활성화” “강력한 보훈정책 추진할 것”

신재봉 도지사 후보, 5대 공약 발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신재봉 전북도지사 후보는 1일 “낙후된 전북이라는 별명을 벗고 잘사는 전북 위해 이번 선거에서 현명한 판단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신재봉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전북 발전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은 ▲새만금 무역항 농업용지 활성화 ▲농약·농자재 무상보급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회관 건립 ▲일자리 창출 ▲물 관리 시스템 일원화 등이다.

신 후보는 “일지리를 찾기 어려워 젊은 층의 전북 이탈이 가속화되고 빈약한 인프라와 맞물려 전북의 미래가 어렵다”며 “특정정당의 독주와 독식 결과 전북 정치는 정체 돼 변화와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민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 독주를 막을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정책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국가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북권 보훈요양원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존경받고 예우 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전주를 비롯한 전북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했음에도 보훈병원이 없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민선6기 때부터 추진된 전북권 보훈요양원이 건립되면 전북지역 4만여 보훈대상자들이 광주나 대전 등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양질의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받게 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반